

절망의 숫자에 익숙해진 시대에 씨앗의 희망

강술생 작가 생태미술 작업
코로나 발발 직후 1년 동안
하나의 호박서 얻은 씨앗 등
쓸모 없는 땅에 심어 새 생명
지난 과정 기록 아카이브전



강술생의 '씨앗의 희망' (2021). 쥐이빨옥수수대, 수수대, 수수씨앗, 원형 광목천을 이용한 설치 작업이다.

코로나 시대, 그는 씨앗을 하나하나 세는 일에 나섰다.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를 보며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그는 1에서 시작해 100, 1000, 10000 등 지치지 않고 일일이 쉰 씨앗의 수로 '희망'을 말하려 한다. 관광과 개발의 논리가 확장되어 온 제주 섬에서 생태미술에 몰입하며 그에 대한 예술적 성찰을 시도하는 작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강술생 작가의 개인전 '씨앗의 희망'이다.

강 작가는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씨앗-앗혀지는 숫자 헤아리기' 작업을 시작했다. 코로나 종식 시기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호박, 수수대, 옥수수대에서 얻은 무수한 씨앗을 헤아리며 이 세계의 생명력을 확인하는 예술행동

이었다.

그중 늙은 호박 하나에서 나온 씨앗과 수수대 씨앗들을 도시계획에 의해 일괄 주택지로 전환되면서 15년간 쓰임을 잃었던 땅에 심는 '100평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별한 관리 없이 자연농법으로 키웠는데, 씨앗들은 스스로 발아하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었다. 인간들이 바이러스에 백없이 흔들리고 있을 때, 작

은 식물들은 오늘도 생명을 틈워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갤러리비오톨(제주시 신성로6길 29)에서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는 1년에 걸쳐 몸의 감각과 사유를 응집했던 그 여정이 공개된다. 생태미술 아카이브 전시와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 자리다.

전시명 '씨앗의 희망'은 '월든'의

작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 사후에 발간된 동명의 저작물에서 따왔다. 자연에 대한 사랑,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는 소로우의 철학과 잇닿는 전시임을 알 수 있다.

갤러리 1층엔 지난 1년 동안 자연에서 얻은 작물의 뿌리, 줄기, 씨앗을 이용한 설치 작업이 놓인다. 2층에서는 씨앗의 성장을 기록한 사진과 영상 등을 나누고 '100평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새로운 씨앗들을 이용해 소로우의 책 속 문구를 씨앗으로 '필사'해보는 참여 행사가 마련된다.

강 작가는 "하나의 호박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예술적 질문이며,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자연생태와 마음생태를 연결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갤러리 개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시 기간 매일 오후 4-5시에는 아티스트 토크와 참여 행사가 예정됐다. 온라인 전시는 유튜브 채널 'Artist 강술생'에서 이뤄진다.

전선화기자

해체된 꽃들에 스민 생의 희로애락

포도호텔 지하 갤러리소이
새 단장하고 김용환 초대전
익숙함의 재해석 '꽃 이미지'



김용환의 '꽃 이미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자리 잡은 포도호텔 지하 1층 포도갤러리가 갤러리소이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2일부터 첫 전시로 김용환 초대전을 열고 있다.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인 김용환 작가는 이번엔 '꽃'을 주제로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해석한 '꽃 이미지' 연작을 선보이고 있다. 꽃은 예술 장르에서 고전적으로 다뤄온 소재다. 짙을 띄우고, 붓오리를 피우고, 만개한 뒤 언젠가 시드는 그것들은 인간사를 닮았다. 피고 지며 계절마다 표정을 달리하는 꽃을 통해 우린 탄생의 기쁨에서 이별의 정서까지 느낀다.

김 작가는 이 같은 꽃을 붙들며 작업을 이어오는 동안 서서히 그 실제적 모습이 사라지는 화면을 빚어 왔다. 그것은 단순히 꽃이라는 형태의 해체를 넘어 어둠과 화려함이 교차하는 생의 희로애락,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기대와 상상을 불러온다.

갤러리소이는 "‘꽃 이미지’를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감정과 스토리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나만의 꽃’에 대한 추억과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초대전은 6월 30일까지 계속된다.

갤러리소이는 2018년 3월 개관한 포도갤러리의 뒤를 이어 제주의 미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예술 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제주 출신 작가와 제주를 표현하는 작가를 발굴해 무료 대관 전시를 이어 왔다. 연중무휴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전선화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쫓지

제주 자연·신화와 만날 패션아트

한국패션문화협회 주최
여름 제주서 패션아트전
감물염색 컬렉션 협업 등

(사)한국패션문화협회(회장 박주희)와 함께 2021 제주국제패션아트전 '로컬-라이징 제주 (LOCAL-RISING JEJU)'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엔 제주의 역사, 문화, 돌문화공원의 장소의 상징성을 담은 작품이 나온다. 돌문화, 한라산, 오름, 설문대할망, 당 신앙, 해녀, 갈웃, 갯 등 자연, 신화, 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80여 점을 펼쳐놓을 예

정이다.

이 전시에는 디자이너 장광호, 이상봉, 김민주, 한현민 등 중진에서 신예까지 출품한다. 특별 기획으로 제주 자연을 작품에 녹여내는 제주 작가 장현승, 강승철, 정미선 등이 참여하는 '감물염색 컬렉션', '패션X도에 컬렉션'이 협업으로 진행된다.

(사)한국패션문화협회는 국내·외 패션디자이너 관련 전공의 교수들과 패션아트 작가, 패션디자이너 등 3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격

년으로 짝수 해에는 서울에서 국제 패션아트비엔날레를, 홀수 해에는 밀라노, 파리 등 해외 도시에서 국제패션아트전을 열어 왔다. 패션쇼만이 아니라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행위 예술 분야 등과 협업을 시도하며 한국패션문화의 진흥과 세계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도시 행사 추진이 어려워 제주로 발길을 돌렸고, 섬이라는 환경에서 탄생한 유다른 문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패션아트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전선화기자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서귀포시 중앙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스마트 K-도서관은 디지털시대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체결하는 창작 공간 등 공공도서관 내 스마트 문화 시설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처음 공모가 이뤄져 전국 66개관이 지원 대상에 뽑혔다. 중앙도서관은 올해 12월까지 카메라, 음향, 조명장비 등을 갖춘 미디어 촬영 스튜디오와 편집 전용 PC가 구비된 미디어 편집실 등 미디어 창작공간을 도서관 4층에 조성한다.

의 시 '낙타와 낙엽'을 들으며 함덕의 지역 문화와 가치, 생활 전반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독자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 신청은 전화(784-6600)나 이메일(hamdeok32@naver.com)로 하면 된다.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이 공동주관하는 제2회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가 5월 27-29일 제주시 칠성로 상점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업은 칠성로상점가 일원 상생협약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칠성로상점가 일원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임주를 희망하는 기업가(스타트업, 기존사업자 등) 등을 모집해 입주 지원과 1년치 임대료(50%, 최대 6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5월 6일 오후 6시까지, 이달 30일엔 사업설명회가 예정됐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문의 727-0612.

어머니의 구슬 씨줄로 삼고
함께했던 시간 날줄로 삼아
우도 강영수씨 신작 수필집



강 작가는 이 창작집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원에서 운명을 달리한 어머니에게 바치는 글로 채웠다. 방문 자제와 출입 제한으로 임종을 지

키지 못했던 아들은 새삼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으며, 나는 또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였을까?"를 떠올렸고 그 감정들을 어머니, 해녀, 세월로 나눠 수필에 담았다.

그는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겐 꼭 속마음을 풀어놓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구슬'을 씨줄로 삼고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날줄로 삼아 한 자락의 수필로 엮었다"면서 "아픈 가정사에서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의 회고록이기에 고인의 한을 풀어드리자는 뜻에서 상재하기로 맘먹었다"고 밝혔다.

제3,4대 북제주군의회 의원을 지낸 강 작가는 시집 '우도돌담'과 '해녀의 몸예선', 수필집 '내 아내의 해녀입니' 등을 펴냈다. 이번 수필집은 열 번째 작품집으로 발간에 맞춰 조만간 우도에 있는 '밤수집엔드라미' 책방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선화기자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뜻 깊은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맞이하여, 풍요로운 제주사회를 위해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신문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오설록농장 | ☎794-6491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드리며 제주의 대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진정한 제주도민의 신문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라일보를 사랑하는 독자